

국별 리포트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488천km ²	G D P	345억 달러(2014년)
인구	5.3백만 명(2014년)	1 인 당 GDP	6,509달러(2012년)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 화 단 위	Manat
대외정책	중국과의 협력관계 증진	환 율(달러당)	3.50

-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 러시아, 사우디에 이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 (17.5조 m³)이자 원유 확인 매장량도 6억 배럴에 이르는 자원부국으로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임.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2012년 2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복수정당 허용 등 점진적인 정치개혁 및 경제재건을 시도하고 있으나, 당분간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요원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러시아 이외 가스 수출대상국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너지 부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 EU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가스 수출량이 확대되고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 2014년 12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을 잇는 남북철도가 공식 개통됨에 따라 해당 철도노선을 통해 걸프해로의 연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의 물류·운송망 개선 및 에너지 수출노선 다변화가 기대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에너지 수출을 통한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 가스생산 확대와 높은 국제가스 가격 및 중국으로의 가스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2010년 이후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며, 2012년에는 중국으로의 가스수출 확대로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3년에도 갈키니쉬(Galkynysh) 가스전 본격생산에 따른 가스 생산확대 및 수출증가세 지속으로 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2014년에도 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가스의 생산 및 수출 증가는 정부 재정수입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는 가계 및 기업 부문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한 정부지출 확대로 이어져 건설, 유통 및 교통 부문의 국내수요 진작효과를 가져옴.

□ 재정책대 정책 및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0% 상회

- 투르크메니스탄은 2012년 공공요금과 식료품 부문에 대한 가격통제 등을 통해 8.5%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지속적인 가계 부문의 지출확대와 가스전 투자를 위한 외국자본 유입 및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재정책대 정책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로 상승함.
- 2014년에는 정부투자 및 사회보장지출 등 재정책대 정책 지속, 루블화 가치하락에 따른 마넛화 환율상승 압력 및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11%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가스수출 확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흑자 기조 유지

- 투르크메니스탄의 재정수지는 최근 중국 등으로의 가스판매 및 생산 확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2012년에는 국제가스 가격 상승, 중국으로의 가스판매 확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는 1.4% 흑자를 기록함.

- 2013년에는 갈키니쉬 가스전 개발에 따른 가스생산 및 수출확대로 재정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체제유지 목적의 선심성 사회보장 지출 및 투자지출 확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는 1.5%를 기록함.
- 2014년에는 갈키니쉬 가스전 생산량 확대, 중국으로의 가스수출 확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공공요금 인상, 연금 및 보조금 증가 등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는 GDP의 1.3% 수준임.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제성장률	6.0	10.0	7.0	8.0	9.0
재정수지 / GDP	-1.5	0.5	1.4	1.5	1.3
소비자물가상승률	10.0	12.0	8.5	9.0	11.0

자료: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국가 주도의 통제 경제체제

- 1991년 독립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은 소비에트식 계획경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점진적 경제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제전반에 대한 국가통제가 지속되고 있음.
- 주요 산업인 천연가스 및 석유 등 에너지 부문은 국가소유이고 국가전반의 임금, 상품가격 및 거래를 통제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종 보조금 혜택, 가격 통제, 전력 무상공급 등을 통해 체제 안정성을 꾀하고 있음.

□ 에너지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천연가스 매장량을 바탕으로 2014년 450억 m³의 가스를 수출하였으며, 가스는 투르크메니스탄 제1의 수출품목임.

- 영국 석유기업 BP의 추산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총매장규모는 17.5조 m³(세계 전체의 9.4%)에 달하고 있음.
- 천연가스 및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부문이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4%(가스 51.4%, 석유제품 12.9%, 석유 11.1%),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12년 2월 재집권한 이후 천연가스 수출 등 에너지부문에 치우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 이외 화학, 섬유 등의 분야에 대한 산업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경제성장 기틀 마련 노력

-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연결하는 총길이 400km의 철로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2013년 3월 3개국 대통령간 공식 서명됨.
- 해당 철로 건설은 3개국간 무역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러시아에 과도하게 집중된 에너지 수출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2009년 12월 개통된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한 가스공급 계약을 중국과 맺은 바 있으며, 2011년 11월에 가스관의 운송용량을 2020년까지 연간 650억 m³까지 확대키로 한 바 있음.
- EU는 카스피해를 경유하여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일부국가에 편중된 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

-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시아, 유럽 및 중동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 중앙아시아에서 이란으로 통하는 실크로드의 주요 경유지로서 동서문명 교류의 중심지였음.

- 북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를 통해 중국까지 연결됨. 또한, 서쪽으로는 카스피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 및 터키와 연결되며, 남쪽으로는 이란을 통해 걸프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 철도 및 교통 인프라가 아직까지 취약한 수준이나,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연결 프로젝트를 통해 물류이동의 중간 경유지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다. 정책성과

□ 2014년 7월 민영화법 발효 등 대규모 민영화 계획 추진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집권 이후 강력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국유재산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13년 1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국유재산 민영화법에 서명함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국영기업 및 국가소유 부동산의 민간매각과 투자 등이 가능해졌으며, 2020년까지 비에너지 부문 국유자산 중 약 70% 가량을 민간에 매각할 예정임.
- 동 민영화법 발효를 통해 중소기업의 출현을 늘려 경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투르크메니스탄의 법적·제도적 여건 미비와 만연된 부패 등을 감안할 때, 정책성과는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함.

□ 2014년 12월 남북철도 공식 개통을 통해 물류·운송망 개선 기대

- 2007년부터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정부는 3개국을 연결하는 총길이 928km의 남북철도(North-South Railway) 건설 사업(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 5월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간 철도, 2014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이란간 철도노선이 각각 개통됨.
- 남북철도 건설사업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의 재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체 투자규모는 약 14억 달러에 달함.

- 해당 철도노선을 통해 이란을 경유해 걸프해로의 연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운송시간 및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러시아를 우회하는 곡물 및 에너지 수출노선 다변화가 달성 가능하며, 향후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반적인 물류, 운송망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협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TAPI 가스관 건설사업을 통한 가스 수송루트 다변화 추진

- 투르크메니스탄은 2030년까지 연간 1,800억 m³의 가스를 수출할 계획으로 다양한 가스 수송루트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TAPI 가스관(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TAPI 가스관 프로젝트는 투르크메니스탄 갈키니쉬 가스전에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경유해 인도까지 1,735km를 연결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가스관 완공을 추진할 계획임.
- TAPI 가스관 프로젝트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4개국은 2012년 국가간 통행료 지불방식과 가스판매구매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문기관으로 ADB를 선정함.
- ADB는 2014년 12월 중 동 프로젝트를 실행할 컨소시엄 리더기업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외국인 가스전 지분소유 제한 정책에 따른 참여기업 부재로 아직까지 리더기업을 선정하지 못함.
- 투르크메니스탄은 원유 및 가스개발과 관련, 육상광구에 대해서는 서비스 계약만 허용하고, 해상광구와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일부 육상광구에만 외국인투자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3. 대외거래

□ 2014년 경상수지는 가스생산 및 수출 확대를 통한 소폭의 흑자

- 투르크메니스탄은 2012년 국제가스 가격 상승과 수출확대를 통해 2.3%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가스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갈키니쉬 가스전 개발을 위한 자본재 및 서비스 수입확대 등으로 동 비율이 -1.9% 적자를 기록함.

- 2014년에는 갈키니쉬 가스전 생산량 확대 및 2014년 5월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세번째 지선인 Line-C 개통으로 대 중국 가스 수출량이 확대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는 0.3%의 흑자를 기록함.
- 마낫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향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2015년 GDP 대비 경상수지는 7%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루블화 가치하락에 따른 마낫화 환율 평가절하

-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은 러시아 루블화 가치하락에 따른 마낫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평가절하 조치를 시행(2014년 12월 18.6%)했고,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투입함.
 - 미 달러 대비 마낫화 환율은 2009년 이후 2.85마낫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평가절하 이후 3.50마낫화 수준으로 상승함.
- 자본재 및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아 세계 환율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보유액 소진이 우려되었으나, 외환보유액은 2014년 기준 267억 달러로 월평균수입액 대비 13.6개월 분에 해당하며,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외채구조는 양호한 수준 유지

- 투르크메니스탄은 최근 외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의존하여 총외채잔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인해 경제규모 대비 외채상환부담은 낮은 수준임.
 - 총외채잔액은 2010년 9.1억 달러 수준에서 2014년 75.1억 달러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14년 15.9%로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임.
- 총외채잔액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 역시 2010년 8.7% 수준에서 2014년 29.7%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0.9%로 단기적 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

- 투르크메니스탄의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13년 2.9%, 2014년 3.3%로 중장기 양허적 조건의 외채가 대부분(약 97% 수준)을 차지함.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14년 기준 0.9%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2014년 8.6%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경 상 수 지	-2,298	439	562	-552	118
경상수지 / GDP	-13.6	2.1	2.3	-1.9	0.3
상 품 수 지	1,475	5,390	5,761	4,500	5,512
수 출	9,679	16,751	19,889	19,900	21,483
수 입	8,204	11,361	14,128	15,400	15,971
외 환 보 유 액	18,778	22,362	28,229	25,841	26,710
총 외 채 잔 액	911	2,937	6,353	8,375	7,511
총외채잔액/GDP	4.1	10.0	18.1	20.6	15.9
D S R	2.2	1.5	1.7	2.0	8.6

자료: IFS, EIU.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2년 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재집권 성공

- 전임 대통령 니야조프의 사망으로 2007년 집권한 베르디무하메도프(G. Berdymukhamedov) 대통령은 2012년 2월 96%의 투표율과 97%의 득표율로 재집권에 성공함.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점진적인 정치개혁 및 경제재건을 시도하고 있으나, 정치 · 사회 및 언론자유 측면에서 아직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장관들의 임기를 가능한 한 보장하여 내각 구성의 안정을 꾀해 왔으며, 금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기존 정부 인사들을 그대로 연임시킴에 따라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예상됨.

□ 2012년 8월 정당 창당 허용

- 정당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신(新) 정당 창당에 관한 법안이 2012년 1월 의회를 통과, 2012년 8월 산업가-기업가당(Party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이 신규로 창당되었음.
 - 산업·기업가당은 2013년 12월 의회에 진출함에 따라 정치역사상 최초로 집권여당 민주당 이외에 의회에 진출한 첫 번째 정당으로 기록됨.
 - 산업·기업가당의 창당은 점진적인 경제자유화를 염두에 둔 정부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동 의회진출을 통해 제도적 틀 안에서 기업가들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의회에 2015년 9월까지 공공논의 과정을 통해 국가 법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 초안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실질적인 개방 및 다원주의로의 전환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12월 총선 결과 집권여당이 다수당 차지

- 투르크메니스탄의 5대 의회(Mejlis) 구성을 위한 총선이 2013년 12월 실시되었으며, 해당 선거는 투르크메니스탄에 복수정당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산하 민주체제인권사무소(ODIHR)가 해당 선거과정을 참관하였으나, 민주적 선거를 위한 절차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91.3%의 투표율을 기록한 동 선거 결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125석 중 47석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산업·기업가당이 14석을 차지함. 나머지 의석은 여성, 노동자, 청년 및 종교단체 등에 할당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실질적인 저항세력이 없어 소요사태 발생가능성은 낮음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언론통제, 표현의 자유 제약 등 정치·언론·종교 다방면에 걸친 통제를 가하는 등 전임 니야조프 대통령과 유사한 대통령 중심의 철권 통치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 광범위한 국가통제로 실질적인 저항세력이 없고 높은 수준의 보조금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사회적 반발을 무마함으로써 집단적 대규모 소요사태 발생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나, 향후 경제성장을 둔화에 따른 기초생계비 제공 등 재정지출이 축소될 경우 사회불안 가능성 있음.

3. 국제관계

□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약화 움직임

-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수출상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수출국 다변화 정책에 따라 중국, 이란, EU 등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에 따라 최근 러시아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과 러시아는 주요 교역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가스 수출가격과 규모에 대한 갈등 및 가스관 사고 등으로 인한 러시아에 대한 가스 수출 중단 등 양국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였음.
- 또한, 정치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한 지역안보 유지정책을 취해 왔으나, 2014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자국 내 러시아의 군사·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 있음.

□ 중국과의 에너지 부문 협력관계 증진

-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년 12월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개통을 통해 중국에 가스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기준 최대 수출대상국이었던 러시아의 수출물량을 초과함.

- 또한, 중국과 2015년까지 연간 수출규모를 400억 m³까지 늘리기로 한 기존계획을 상향 조정하여 연간 650억 m³ 규모로 재합의하면서 최대 수출대상국 지위를 공고히 함.
- 2014년 5월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의 세 번째 지선인 Line C(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중국)가 개통되었으며, 해당 라인은 총연장 1,830km로 연간 최대 수송능력은 250억 m³에 달함.
- * 기존 Line A, Line B는 각각 2009년, 2010년에 개통되었으며, Line D(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즈-중국)는 2016년 개통을 목표로 2014년 9월 건설을 시작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양호한 수준의 외채상환태도

- 투르크메니스탄은 폐쇄경제 체제로 인해 외채규모가 크지 않은 편으로 파리클럽과의 공적채무 리스케줄링 경험은 없으며, 전반적인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임.
- 2014년 9월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승인 잔액은 총 20억 8,690만 달러(단기 1,840만 달러, 중장기 20억 6,850만 달러)이며, 이 중 0.04%에 해당하는 100만 달러가 연체 중임.

2. 국제시장평가

□ OECD는 2008년 2월 이후 6등급 유지

- OECD는 2008년 2월 투르크메니스탄의 풍부한 천연자원에 기반한 성장 잠재력과 베르디무하메도프 신정부의 대외관계 개선 노력 등을 들어 국가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등급을 조정하지 않음.
- 2015년 1월 제71차 OECD CRE(Country Risk Experts) 회의에서는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일부국가가 5등급으로의 상향조정을 제안하였으나, 대다수 국가가 기존 등급 유지를 제안하여 6등급으로 결정됨.

- Moody's는 2010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신용등급 평가를 지속하기 위한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2002년 1월에 부여했던 등급(B2)을 철회한 이후 현재까지 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며, S&P와 Fitch 역시 등급을 부여한 바 없음.

□ 주요 ECA의 지원태도('14년 10월 기준)

- 미국 수은 : 공공부문에 대한 제한적인 단기 / 중기 인수 가능
- 영국 ECGD : 단기 인수가능, 중기인수는 제한적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14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1.9억 달러 수준으로 미미

- 우리나라와 투르크메니스탄간 교역규모는 2008~2011년 기간 중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4년 들어 다소 회복하며, 2014년 기준 1.9억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수출규모에 비해 수입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2014년 기준 수출액 1.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수입액은 15.6만 달러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정전기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의류, 기타섬유제품, 가방 등임.

<표 4> 한·투르크메니스탄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출	193,509	141,189	192,987	자동차,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정전기기
수입	837	126	156	의류, 기타섬유제품, 가방
합계	194,346	141,315	193,143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미미한 수준

- 2014년 12월말 기준 대 투르크메니스탄 직접투자 규모(누계기준)은 총 3건(신규법인수), 3.8만 달러(투자금액)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주요 투자업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3.3만 달러)임.

V. 종합 의견

- 투르크메니스탄은 최근 갈키니쉬 가스전 본격생산에 따른 천연가스 생산 확대 및 중국으로의 가스수출 증가 등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중국 등으로의 가스판매 및 생산확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재정수지는 최근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역시 흑자기조로 최근 마낫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감소 효과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신규창당 허용을 포함한 점진적인 정치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언론통제, 표현의 자유 제약 등 철권통치를 통해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은 수준임.
- 에너지 수출다변화 정책에 따라 중국과 에너지 부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이란, EU 등과의 협력관계도 강화되고 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자국 내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음.

조사역 김세진 (☎02-6255-5703)
E-mail: sejin0302@koreaexim.go.kr